

법무부 ·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읍면동서 위기 채무자 지원 체계 강화

**- 지자체와 연계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및
132 콜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직통번호 개설로 위기 채무자 적극 지원**

앞으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다가 빚으로 고통받는
정황이 포착되면 클릭 한 번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전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법무부(장관 정성호)는 대한법률구조공단(이사장 김영진)과 함께 위기 채무자를
보다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,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원이 필요한
대상자를 조기에 발굴·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.

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6개 지자체(서울 중랑구·강동구, 경기 남양주시, 경북
김천시, 충남 당진시, 전북 익산시 등)와 협력하여, 지자체에서 법률지원이 필요한
대상자를 발굴하여 공단으로 의뢰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. 그 결과
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상대로 적합한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
있었습니다. 법무부와 공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, 지자체와의 협업을
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.

※ 약 1년간 법률상담 326건, 소송대리 105건 지원('26. 6. 30.)

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, 공단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참여를 통해
공단과 지자체가 위기 채무자를 발굴하여 상호 의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
그에 따라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
기반을 마련했습니다.

2027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상담 중
발견된 법률문제를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공단에 직접 의뢰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중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지자체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.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의 상담으로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.

또한 공단 132 법률상담 콜센터에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를 위한 직통 연결번호를 신설하여, 복지현장에서 발견된 위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

법무부와 공단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,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 채무자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.

붙임. 공단 132 법률상담 콜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직통 번호 안내

담당 부서	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	책임자	과장	반지 (02-2110-3263)
		담당자	검찰사무관	오승진 (02-2110-3643)
	대한법률구조공단	책임자	전략기획부장	정해청 (054-810-1151)
		담당자	팀장	박성완 (054-810-1152)



- 공단에서 운영중인 법률상담 콜센터(☎132)에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를 위한 전용번호(7번)를 신설하여, 신속하게 법률구조 플랫폼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안내 및 연계토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업무 편의성 증대 및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

<법률상담 콜센터(☎132) 및 디지털셀프서비스(보이는 ARS) 이용 방법>

132 콜센터

(국번 없이) **132**

(해외 전화) **82-54-132**

※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

1 방문 상담 예약	2 사무실 위치 / 법률구조 절차	3 법률 정보 안내
4 채팅상담 연결	5	6
7 사회복지담당자 전용번호	8 인공지능법률정보 질의-응답시스템	9 법률서비스 안내 등 법률구조 플랫폼 연결
*	0 상담원 연결	#

맞춤형 법률복지

법률구조 플랫폼

전문
상담사

※ 법률구조 플랫폼 : 정부·공공기관·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구현